

# Home Stories

현대자동차 ×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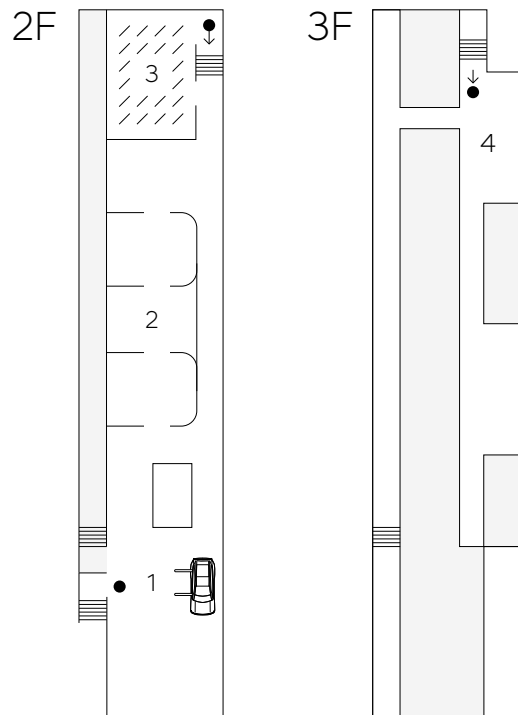
HYUNDAI  
MOTORSTUDIO  
BUSAN

2023. 4. 6 - 2023. 10. 1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고 편하게 전시 및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가까이에 있는 구루(Guru)에게 문의하시면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Hyundai Motorstudio Busan is free entrance and  
open for visit anytime during operation hour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xhibition,  
please ask a Guru nearby for friendly explanations

전시 안내  
Exhibition Floor Plan



- Section 1** 아이오닉 콘셉트카 '세븐(SEVEN)' / IONIQ SEVEN Concept  
**Section 2** 홈 스토리즈 : 20개의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보는 100년의 역사 /  
Home Stories: 100 Years, 20 Visionary Interiors  
**Section 3** 흐르는 들판 아래 / Under a Flowing Field  
**Section 4** 아카이브 라운지 / The Archive Lounge

# Home Stories

## 홈 스토리즈

###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확장되는 미래 쉼터

#### Home Stories

Future Shelter Expands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힘(Design to live by)’이라는 콘셉트 하에 다양한 디자인 전시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23년은 Shelter라는 연간 주제로 주거 환경에 대한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아이디어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얼마전 막을 내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소개한 <해비타트 원>에 이어 23년 4월부터 진행되는 <홈 스토리즈>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소개하는 20여개의 혁신적 인테리어를 통해 지난 100년간 주거 문화의 진화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이와 함께, 공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삶의 공간이 될 ‘모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콘셉트카 ‘세븐(SEVEN)’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만나게 될 모빌리티 디자인으로 시작되는 <홈 스토리즈> 전시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100년사 전시를 경험하고 영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듀오 디자인 그룹 ‘스튜디오 스와인(Studio Swine)’의 신작으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흐르는 들판 아래’라는 작품은 아이오닉에 실제 사용된 소재로 제작되어 관람객들이 편하게 휴식하며 새롭게 재해석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선보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함께 한 이번 <홈 스토리즈> 전시를 통해 인류를 위해 진보해 온 주거 문화의 변화를 느껴보고 미래 주거 환경이 모빌리티와 어떻게 조우할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Since 2021, Hyundai Motorstudio Busan continually presents exhibitions reflecting its concept, “Design to live by,” exploring life-enriching design innovations. Most recently from 2022 to 2023, Hyundai Motorstudio Busan presented its fourth exhibition “Habitat One” featuring a collection of sustainable housing solutions for the future under its annual theme ‘Shelter.’ This exhibition, “Home Stories,” delves into how the culture of home life has evolved over the past century, demonstrated through 20 interior design innovations prepared by Vitra Design Museum.

“Home Stories” also highlights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mobility, which is rapidly becoming an integral element of new living spaces - especially in today’s era where the boundaries of space are gradually fading. The exhibition takes visitors on an immersive journey - starting off with a peek into the future with the IONIQ SEVEN concept car, then traveling through a 100-year timeline, and finally concluding with “Under a Flowing Field,” the latest work by London and Tokyo-based design studio, Studio Swine. Made from the same materials used in the SEVEN concept, “Under

a Flowing Field” offers a unique shelter space where visitors can enjoy an artistic vision of the future of mobility.

Co-organized by Hyundai Motor and the Vitra Design Museum, “Home Stories” invites visitors to experience how life at home has changed over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new ideas and technologies - as well as envision the fundamental role of mobility in future residential spaces.

# How do we want to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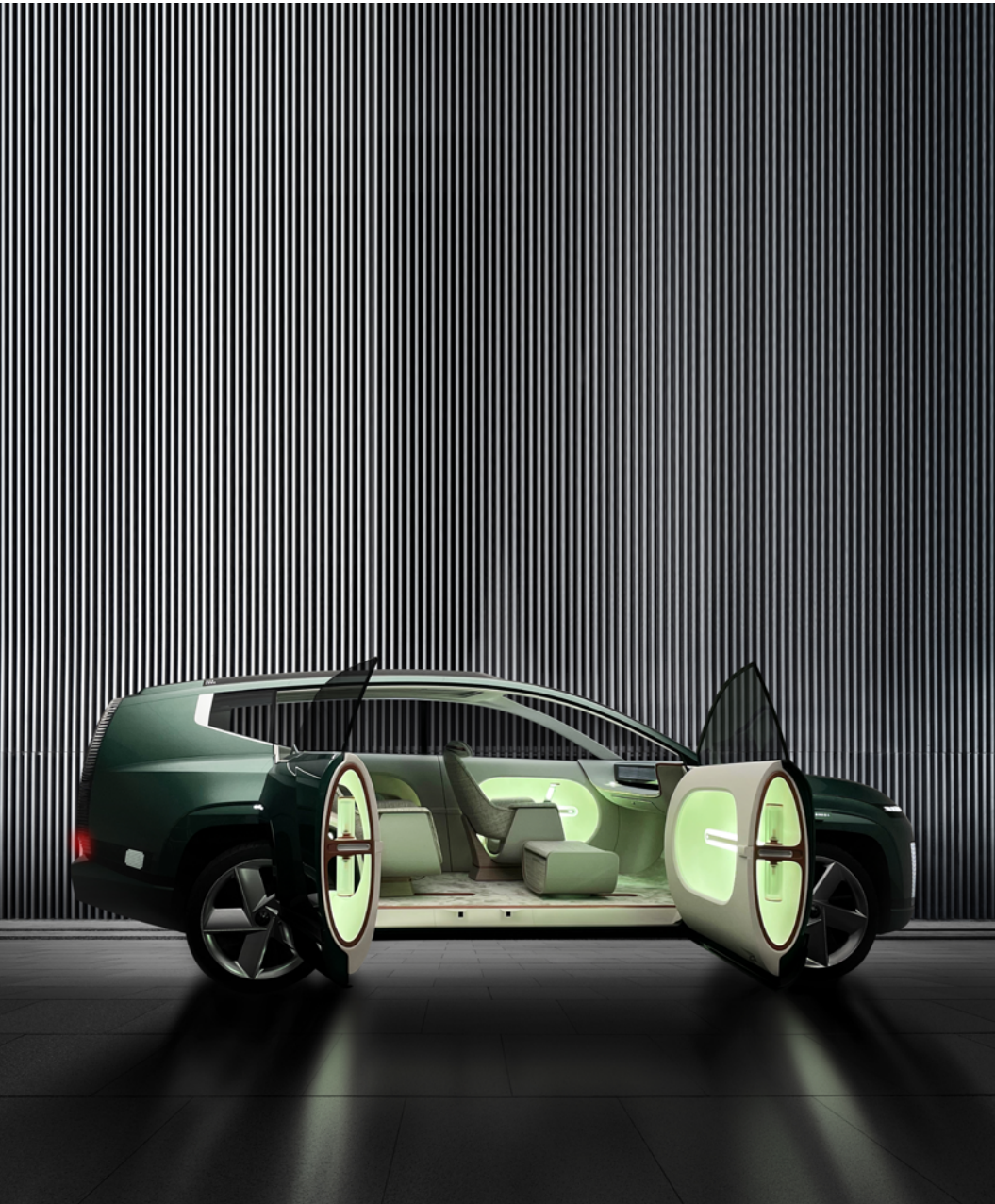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나요?



## Section 1

### 아이오닉 콘셉트카 ‘세븐(SEVEN)’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활 공간



## Section 1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동의 자유를 선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서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시의 첫 장을 여는 아이오닉 콘셉트카 ‘세븐(SEVEN)’은 이렇듯 근미래의 새로운 모빌리티 모습을 소개합니다.

‘세븐(SEVEN)’은 지금까지 이동 수단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합니다. 회전 라운지 체어, 플랫 플로어와 함께 자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해 고객은 이동중에도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과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 시대를 반영한 라운지형 내부 공간은 장시간 이동에도 내 집 거실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미래 시대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콘셉트카 ‘세븐(SEVEN)’은 혁신적 인터리어가 그랬듯이 이동과 주거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일상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신개념 쉼터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내장재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탄생한 콘셉트카 ‘세븐(SEVEN)’을 통해 더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을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 Section 1

### IONIQ SEVE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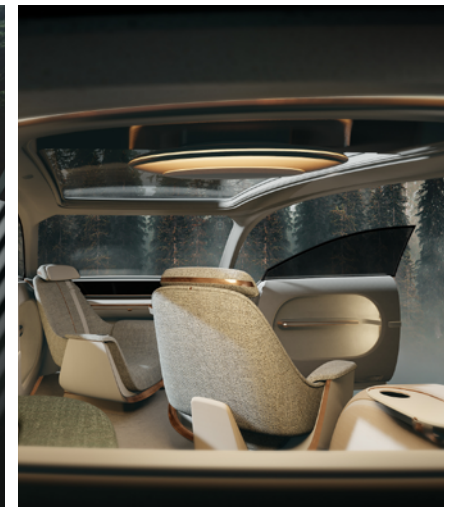
A New Living Space

With advancements in mobility technology providing us with more freedom of motion than ever before, the car of the future will no longer be a mere vessel for transportation but a new type of living space. Leading off the exhibit's first chapter, the SEVEN concept introduces a new direction of future mobility that reflects this vision.

The SEVEN concept embodies an experience that transcends transportation. With revolving lounge chairs and a flat floor, passengers can work, play, and socialize while on the move. Employing the benefits of autonomous driving, the lounge-like interior offers maximum comfort so that passengers can feel at home even during long rides. Symbolizing the mobility of the future, the SEVEN concept presents a new type of shelter that seamlessly integrates transportation and residence to enrich our lives with more flexibility.

Created with eco-friendly materials and nature-inspired designs, the SEVEN concept additionally proposes a more sustainable lifestyle.

Section 1



## Section 2

### 홈 스토리즈 :

#### 20개의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보는 100년의 역사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파트너십 전시

### Home Stori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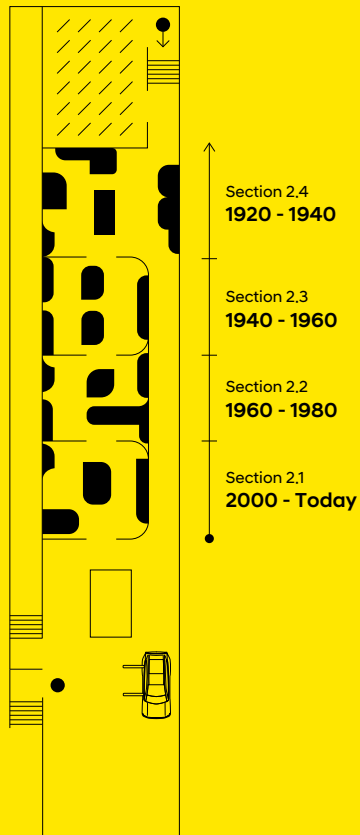
#### 100 Years, 20 Visionary Interiors

with Vitra Design Museum

‘집’은 라이프스타일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주자의 일상이 녹아 있으며 좋은 삶을 가꾸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 취향 외에도 당시 혁신을 가져온 사회, 경제, 기술 등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홈 스토리즈 : 20개의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보는 100년의 역사>전은 시간의 흐름을 통한 단순 스타일의 변천사가 아닌 현재부터 1920년대까지 주거환경의 궤적을 역추적하며, 주요 아이디어의 등장과 이를 통한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맞춰 전시는 근현대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상징하는 인테리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은 외부와 분리된 개인 안식처로서의 역할도 있기에 다소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삶과 밀착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변화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변화를 주도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며 기존 관습으로부터 공간과 거주자를 자유롭게 했던 인테리어들을 소개합니다.



## Section 2

Home is an expression of our lifestyle. It shapes our daily routines and determines our well-being. However, the various forms and styles of domestic living also reflect the general social, economic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which over the past century have driven innovations in the way we live.

The projects depicted in “Home Stories” trace these developments retrospectively—from the present to the 1920s—not as a history of style but rather as a history of ideas. The selected interiors represent either the initial appearance or particularly vivid expressions of new concepts that shaped domestic living in the Western world. The domestic sphere is a refuge from the outside world and tends to resist change and to evolve only slowly over a long time span. Nevertheless, a domestic space must not only be a passive mirror of existing conditions, but it can also act as an agent for change.

The intention of quite a number of the interiors shown here was to liberate the spaces and their inhabitants from prevailing conven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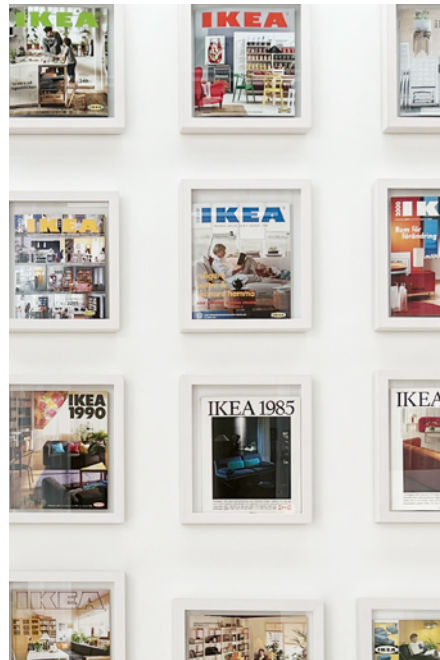
## Section 2.1

### 자원으로서의 주거 공간

### Residential Space as a Resource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과 사의 영역, 혹은 주거와 근무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무선 인터넷 환경은 이러한 공간의 기능적인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공유 경제의 활성화로 개인의 주거공간을 자유롭게 임대하고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문화가 시작되고 이로 인해 주거공간은 점차 상품화되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다 쉽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가정용 가구들이 점차 비슷한 면모를 띄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는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으로 도심에 위치한 많은 주거 공간들이 노후로 인해 재개발되며 주요한 자산이자 투기 대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도시 개발에서 중요히 생각해야 할 점은 기존의 건물에 새로운 목적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주도하며, 신개념 에너지의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era of digitization is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between living and working. To some degree, wireless Internet access has made the functional allocation of space irrelevant. Private living space is self-published on the Internet platforms of the “sharing economy,” thereby progressively commercializing and commodifying it. On the other hand, the rise of social media has made the presentation of interior design more accessible and democratic, which may in turn

have led to many home furnishings gradually taking on a more homogenous appearance. Subsequently, unusual and individually crafted interiors evoke a certain fascination and are a source of inspiration. Residential space in many city centers is becoming scarce and thus a valuable resource or even an object of speculation. In light of this development, the focus has shifted to repurposing existing buildings, the efficient use of space, and new energy concepts.







1960년대의 사회적 변혁은 인테리어 분야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주거 공간과 가구들도 바뀌었으며 기존의 위계질서, 가족 형태, 관습 등을 탈피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과 주거를 결합한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는 로프트 형태의 주거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합니다. 또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탐구로 점철된 ‘우주 시대’의 시작은 이동 환경에 적합한 캡슐형 주거 공간의 탄생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는 인테리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조경과 빌트인 가구가 건축의 영역을 벗어나 별도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은 형태와 재료에 대한 기존 모더니즘의 개념을 붕괴시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외향적인 가치가 다시 대두되었고, 한동안 주춤했던 집을 장식하고 꾸미는 트렌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는 지위의 상징이자 물질적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The social awakening of the 1960s found its reflection in the interior. Residential space and its furnishings began to shift, and new ways of living emerged that questioned established hierarchies, family models, and habits. The artist studio that combined living and working enjoyed renewed prominence in the form of lofts. The Space Age inspired the concept of a fully equipped capsule for an increasingly mobile society. The 1970s became the decade of the interior, and the most interesting developments—domestic landscapes or built-in furnishings—were often an enterprise designed independently of the architectural shell. In the 1980s, postmodernity broke with the modern idea of good form and material fidelity: Everything became surface. Through it, ornament and decoration returned to the home, and furniture became a commodity fetish, a status symbol.





## Section 2.3

### 자연과 기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주방의 모듈러 시스템과 기계화로 표현되는 모더니즘 개념이 주거 공간에 반영됩니다. 냉전시대 속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가전제품의 자동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수의 전시와 무역 박람회에서 현대적인 삶과 미래의 주거 공간을 활발하게 소개한 반면에, 영화들은 이러한 현상을 유머스럽게 비판하고 풍자했습니다. 주거 공간에 자연을 유입시키는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통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주거공간의 내외부 구분이 모호해진 현상에도 기인합니다. 자연적인 형태와 소재가 각광받으면서 스칸디나비아 인테리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구 또한 유기적인 형태를 취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인테리어는 무미건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장식적인 요소를 거부했지만 색채와 장식들은 전후(post-war) 인테리어의 직물과 소품, 예술 작품과 오브제 컬렉션의 형태로 섬세하게 조합되었습니다.



### Nature and Technology

Modernism entered the domestic sphere via the kitchen at the end of World War II with the concept of modular systems and mechanization. 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old War superpowers, the automation of household appliances represented the ultimate expression of the living standards achieved under capitalism. While modern living and the domestic sphere of the future were marketed at exhibitions and trade shows, films humorously criticized and caricatured them. The opening up of the interior to nature characterized the 1950s and '60s dwelling: visually, thanks to plate glass, but also physically in near-seamless transitions between indoor and outdoor living spaces. The wide trend for natural shapes and materials notably influenced the Scandinavian interior;

## Section 2.3

### 1940 - 1960

equally, furniture took on organic forms. And while the interiors of the 1920s and '30s had rejected knick-knacks, decoration, and ornament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felt quite sterile, color and decoration were reinstated in the post-war interior in careful orchestrations of textiles, collections of objects, and artworks.



## Section 2.4

### 모던 인테리어의 탄생

### The Birth of Modern Interiors

모든 인테리어 디자인은 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러시아 혁명 등 사회적 격변의 여파로 1920년대 디자이너들은 주거 공간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며 삼차원적인, 새로운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장식적인 요소들은 인습 타파의 일환이자 미학적, 실용적, 위생상의 이유로 인해 인테리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얇은 튜브형 강철 프레임이 등장하면서 의자는 고압적인 외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주거 공간은 새롭게 변모하고 효율적

인 생산 과정을 기반한 표준화 가구 생산이 시작됩니다.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도, 비엔나의 중산층 가구 스타일은 조금 다르게 발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설계한 모더니즘적인 주택과 아파트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주도하여 만든 주거 공간과는 대조되는 편입니다. 인테리어는 사회적 변화의 지표로 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인간 생활방식에 근간을 두고 주요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해 기술하는 자서전, 즉 이번 전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 Section 2.4

### 1920 - 1940



All interior design begins with the room. In the 1920s—in the wake of World War I and the social upheavals of the Russian Revolution—designers sought new approaches to the living space: open, flowing, and three-dimensional. In a kind of iconoclasm, decoration and ornament were banished from the interior for aesthetics as well as practical and hygienic reasons. Tubular steel liberated seating from its overbearing appearance. Industrial and economic thought percolated through to the domestic sphere, shaping the new space - and step-saving plans and standardized furnishings. A less radical form of modern living emerged in the middle-class Viennese style of home furnishings. The modern houses and apartments were designed mostly by architects that stood in contrast to the residential spaces individually crafted by interior designers. The interior—reconsidered without the burden of social convention, but laden with history—became a spatial autobiography. To this extent came the birth of the idea of the Home Stories.



## Section 3

### 흐르는 들판 아래

인간과 기술, 자연이 조우하는 미래의 쉼터

‘흐르는 들판 아래’는 스튜디오 스와인(Studio Swine)이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에 영감을 받아 미래적 쉼터로 새롭게 창조한 몰입형 설치 작품입니다. 작품 내부에는 전기 자동차 ‘세븐(SEVEN)’의 친환경 소재가 활용되었으며 전기 에너지와 함께 기술로 재현된 자연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미래 쉼터를 구현합니다.

천장에서 시작되는 빛의 움직임은 마치 비처럼 무작위로 떨어지다 점점 들판에 부는 바람이나 새의 비행처럼 일정 패턴을 형성하며 공간을 장악합니다. 빛의 울림이 최고조에 이르면 파도처럼 요동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자아내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다양한 빛의 움직임을 네온 튜브로 구현한 ‘플라스마 공간’은 스튜디오 스와인이 ‘에피머랄 테크(Ephemeral Tech)’라고 명명한 기술을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플라스마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 고체, 액체, 기체보다 더 희귀한 물질로 번개, 폭풍, 북극광, 혜성의 꼬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별과 태양이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을 통해 주변에 함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에너지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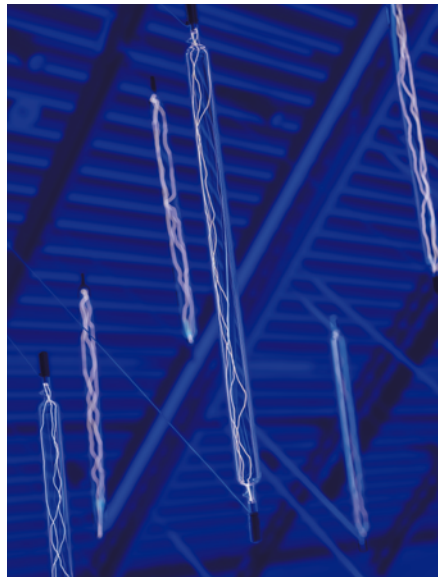
질은 푸른색으로 연출된 전시 공간은 인간이 알고 있는 생명체의 유일한 휴식처, 푸른 별 지구를 상징합니다. 스튜디오 스와인은 건축가 버크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가 지구를 “차가운 진공의 공간을 통과하는 지구라는 이름의 모빌리티”라고 언급한 것에서 착안하여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마치 끝없는 우주처럼 펼쳐진 작품 속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 Under a Flowing Field

A Shelter in the future where humans, technology, and nature coexist

“Under a Flowing Field” is a shelter newly created by Studio Swine, inspired by the Hyundai Motor Company’s vision of future mobility. A future shelter presents a harmony of latest technology and movements observed within nature. It also uses the eco-friendly materials of the electric car SEVEN in its seating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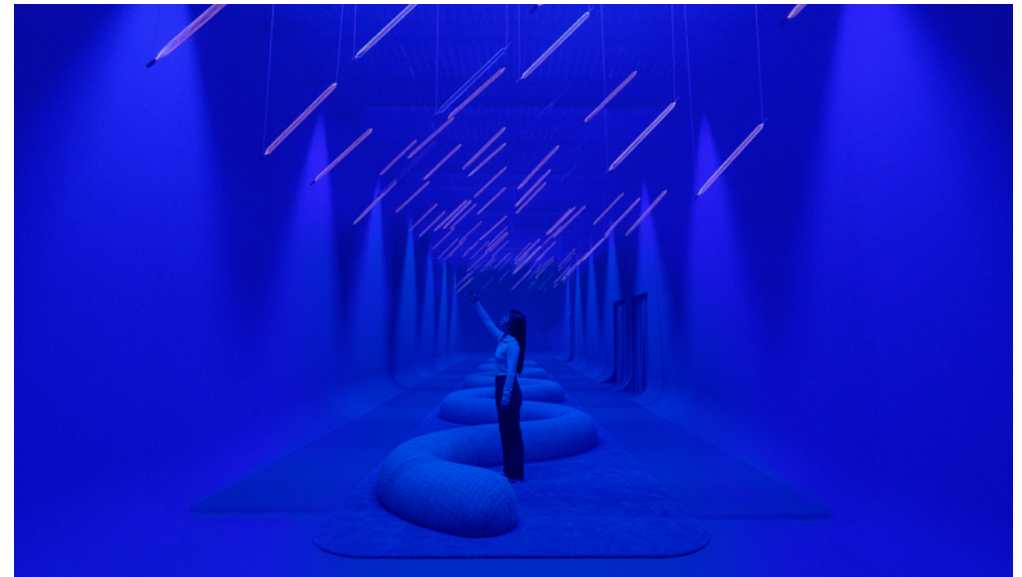
The movement of the light that initiates from the ceiling falls randomly like rain and gradually forms a certain pattern like the wind blowing in a field or the flight of birds, eventually seizing the space. Once the resonance of light reaches its peak, it creates a dynamic scene that fluctuates like a wave, creating a dramatic scene.



The plasma space filled with neon tubes, which embodies the various movements of the light, visualizes ‘Ephemeral Tech,’ a type of technology named by Studio Swine. Plasma is ethereal and a less common matter on earth in comparison to solid, liquid, and gas, and it takes the form of lightning storms, the northern lights, or the tail of comets. However, despite appearing in rare phenomena on earth, it takes up over 99% of the visible universe since all the stars and our sun are in a state of plasma. Through the installation, visitors can expose themselves to the power of invisible energy around us.

The space is a deep blue, the one that is

the only habitable shelter for life that we know so far, symbolizing the blue planet Earth. Studio Swine shapes the installation inspired by the idea by Buckminster Fuller, who calls the Earth as ‘mobility hurtling through the cold vacuum of space.’ Please enjoy this contemplative space where you can fully immerse yourself in the blue infinity universe.



흐르는 들판 아래, 유리, 크립톤 &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3.

Under a Flowing Field, Borosilicate glass tubes, krypton &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23.



Photograph courtesy: Emiliano Granado

영국 왕립학교(RCA)를 졸업한 일본 출신의 아즈사 무라카미(Azusa Murakami)와 영국 출신의 알렉산더 그로브스(Alexander Groves)가 2011년 런던에 공동으로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스와인(Swine)'은 'Super Wide Interdisciplinary New Explorers'의 앞 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2012년 해양에서 건져 올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든 스툴, '시 체어'로 주목받았고, 2017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선 '뉴 스프링' 등을 선보이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들의 작업은 조각, 설치, 영상의 영역을 넘나드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순수 예술 분야에서는 A.A.Murakami라는 아티스트명으로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tudio Swine is a design studio in London, co-founded in 2011 by Japanese architect Azusa Murakami from Japan and British artist Alexander Groves, both graduates of the Royal College of Art (RCA). Swine - an acronym for 'Super Wide Interdisciplinary New Explorers' - made its first breakthrough in 2012 with Sea Chair, a stool made entirely of plastic waste from the ocean. They went on to gain recognition for New Spring, which they presented at Milan Design Week in 2017. Also known as A.A.Murakami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art, this visionary duo integrates elements of sculpture, installation and video, and seeks to create new phenomena and immersive experiences.

**알렉산더 그로브스 (Alexander Groves)**

1983년생, 영국 (Born 1983, UK)

2003-2006

러스킨 예술학교, 옥스퍼드 대학, 영국

Ruskin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of Oxford, UK

2009-2011

왕립 예술학교, 영국

Royal College of Art, UK

**아즈사 무라카미 (Azusa Murakami)**

1984년생, 일본 (Born 1984, Japan)

2003-2006

바틀렛 건축대학,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영국

Bartlett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2008-2010

왕립 예술학교, 영국

Royal College of Art, UK

**EXHIBITION**

- 2023** <홈 스토리즈>,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한국  
*Home Stories*, Hyundai Motorstudio Busan, South Korea  
 <폐기물 시대>, 디자인 연구소, 홍콩  
*Waste Age- Design Institute*, Hong Kong  
 <사물의 표면 속으로>, NFT 파리, 그랑 팔레 에페메르, 파리  
*Into the Surface of Things*, NFT Paris, Grand Palais Éphémère, Paris
- 2022** <두 세계 사이>, 탕크 박물관, 상하이, 중국  
*Between Two Worlds*, Tank Museum, Shanghai, China  
 <스페이스 심포니>,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한국  
*Space Symphony*, Paradise Art Space, South Korea  
 <통로>, 영구 설치, LG 아트센터, 한국  
*Passage*, Permanent Installation, LG Art Centre, South Korea  
 <구름산책자>, 리움 미술관, 한국  
*Cloud Walkers*, Leeum Art Museum, South Korea  
 <플로팅 월드 제네시스>, 페이스 갤러리, 한국  
*Floating World Genesis*, Pace Gallery, South Korea  
 <사상가 정원>, ACC, 광주, 한국  
*Thinkers Garden*, ACC, Gwangju, South Korea  
 <파장>, 타임즈 미술관, 베이징, 중국  
*Wavelengths*, Times art museum, Beijing, China  
 <폐기물 시대>, 디자인 박물관, 런던, 영국  
*Waste Age*, Design Museum, London, U.K
- 2021** <사일런트 폴-슈퍼블루 런던>, 벌링턴 가든, 런던 왕립 예술학교, 런던, 영국  
*Silent Fall- Superblue London*, Burlington Gardens, Royal Academy of Art London, UK  
 <영원의 집 문턱에서>, 70SQM2 공간, 상하이, 중국  
*On the Threshold to the House of Eternity*, 70SQM2 Space, Shanghai, China  
 <섬유 코드>, 중국 디자인 박물관, 중국 미술학원, 항저우, 중국  
*The Fiber Code*, China Design Museum, China Academy of Art, Hangzhou, China  
 <스프링 포레스트>, 더 현대, 한국  
*Spring Forest*, The Hyundai Seoul, Korea  
 <파라다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쿤스트팔라스트, 뒤셀도르프, 독일  
*Welcome to Paradise*, Kunstpalast, Düsseldorf, Germany  
 <천 겹의 위>, 개인전, 펄럼 갤러리, 홍콩  
*A Thousand Layers of Stomach*, Solo show, Pearl Lam Gallery, Hong Kong
- 2020** <희귀 박테리아의 대사 또는 다섯 개의 오래된 제단>, 개인전, 디자인 소사이어티, 선전, 중국  
*Metabolic or Five Old Altars of Rare Bacteria* Solo Exhibition, Design Society, Shenzhen, China  
 <연결된>, 런던 디자인 박물관, 런던, 영국  
*Connected*, Design Museum London, London, United King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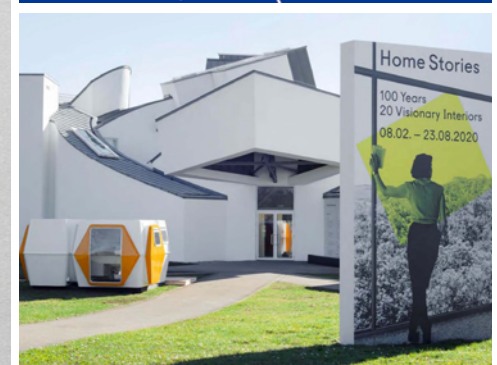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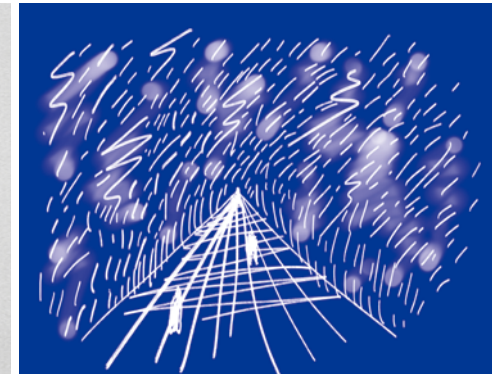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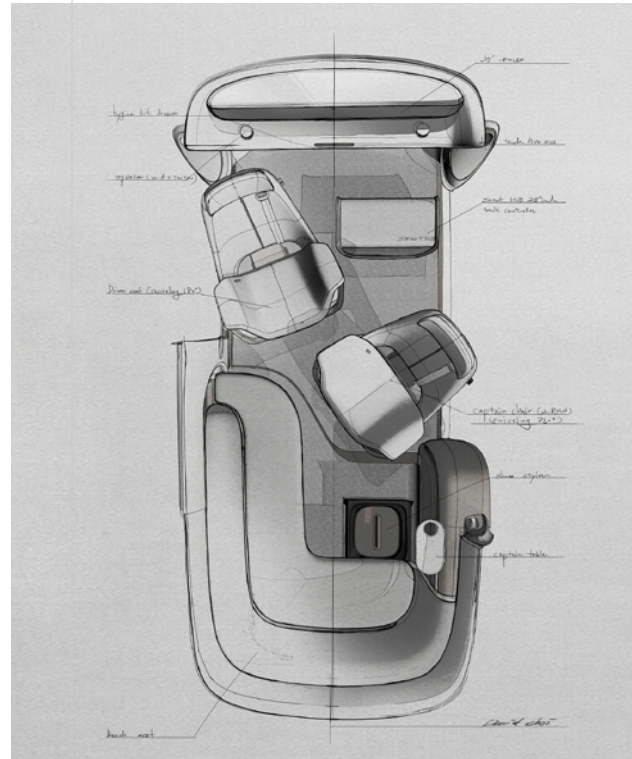
**AWARDS**

- 2019** 월페이퍼\* 어워드  
 Wallpaper\* Award  
 호스텔팔 클럽 탑 100 크리에이티브  
 Hospital Club Top 100 Creatives
- 2018** 엘레 데코 인터내셔널 영 스튜디오 어워드, 베스트 영 스튜디오  
 Elle Deco International Award for Best Young Studio  
 인터리어 차이나, 국제 탑 10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Interni China, Top 10 Creative Studios in World
- 2017** 밀라노 살롱 어워드, 베스트 인스톨레이션, 이탈리아  
 Milano Salone Award, Best Installation for Engagement, Italy  
 메종&오브제 라이징 탈런트 어워드, 프랑스  
 Maison & Objet Rising Talent Award, France  
 아트 파운데이션, 소재 혁신 상, 결승 출전, 영국  
 Arts Foundation, Material Innovation Award, Finalist, UK



이 공간에서는 <홈 스토리즈> 전시의 지난 여정과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미래 쉼터를 제시하는 ‘세븐 (SEVEN)’의 콘셉트 및 개발 배경은 물론,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처음 선보인 <홈 스토리즈: 20개의 혁신적인 인테리어> 보는 100년의 역사>전의 오리지널 도록과 뮤지엄에서의 전시 사진 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스와인의 작품 세계 전반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흐르는 들판 아래’의 구성 방식과 의미, 작품에 담긴 철학을 보여주는 콘셉트 스케치와 사진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ast rooms of the exhibition explore the past journey and the records of “Home Stories.” A future shelter as a living space equipped with mobility, SEVEN’s design concepts and development background, the original catalogues, and the previous exhibition photos of “Home Stories: 100 Years, 20 Visionary Interiors” are also on view. In addition, a variety of archives showing the world of Studio Swine’s works are displayed. The concept sketches and photos will help the audience to explore the meaning and philosophy of “Under a Flowing Field.”



© Vitra Design Museum, Photo: Ludger Paffrath



##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대하여

About the Vitra Design Museum



© Vitra Design Museum, Photo: Norbert Miguletz

독일 바일암라인에 위치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는 약 400여 개의 주요 오브제들이 전시되어 현대 가구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컬렉션과 연구기관으로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두 번의 주요 기획 전시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규모 전시와 활동들을 통해 전 세계 디자인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 인테리어는 모든 디자인 분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기에 모두의 관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공간의 인테리어는 거주자의 개성을 종종 표현하며 이는 홈스토리의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집의 인테리어를 통해 한 인물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헨 아이젠브랜트,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수석 큐레이터  
<홈 스토리즈: 20개의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보는 100년의 역사>에 대하여

Located in Weil am Rhein, Germany, the Vitra Design Museum numbers among the world's leading museums of design, with approximately 400 key objects from the extensive collection. It is dedicated to the research and presentation of design, past and present, and examines design's relationship to architecture, art and everyday culture. The museum inspires design enthusiasts around the world and mounts two major exhibitions each year.

“The interior design of residential spaces may well be the most popular of all design disciplines. Ideally everyone has a home, so it is topic that concerns everyone. Private interiors are often an expression of the personality of their residents, hence the idea of the Home Story: The portrait of a person by way of their home interior.”

Jochen Eisenbrand, Chief Curator at the Vitra Design Museum  
on the topic of “Home Stories: 100 Years, 20 Visionary Interiors”

## 현대자동차 ×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파트너십

Hyundai Motor × Vitra Design Museum Partnership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의 힘의 컨셉으로 다양한 디자인 전시를 기획해 왔습니다. ‘인류애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브랜드 비전을 가진 현대자동차는 디자인 혁신이 일상생활 속 기술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하고자 비트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첫 협력 전시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 (2021)을 통해 현대차의 로봇틱스 기술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이번 <홈 스토리즈> 전시를 통해 주거 환경과 미래 모빌리티의 결합을 탐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현대자동차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객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Hyundai Motorstudio Busa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uture design with the concept 'Design to live by' and provides various design-related contents. Through this, Hyundai Motor is continuously striving for progress in design and technology by pursuing its vision 'Progress for Humanity.'

Hyundai Motor and the Vitra Design Museum share an interest in improving human life and inspiring design. The partnership began from a mutual understanding of the design vision that inspires our lives. Together, the “Hello, Robot, Design between Human and Machine” (2021) exhibition presented Hyundai's robotics technology and future mobility innovation. And this new collaboration, the “Home Stories” exhibition,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future mobility and present a new vision. This collaboration will continue with various global partners as Hyundai seeks to communicate with customers in creative ways.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 (2021)  
HMS Busan “Hello, Robot, Design between Human and Machine” (2021)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 <헬로 로봇, 인간과 기계 그리고 디자인> (2021)  
HMS Beijing “Hello, Robot, Design between Human and Machine” (2021)

“Home Stories” highlights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mobility, which is rapidly becoming an integral element of new living spaces - especially in today’s era where the boundaries of space are gradually fading.

공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서  
‘모빌리티’는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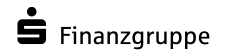
<https://motorstudio.hyundai.com/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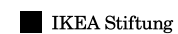
Partnership with



Main Partner



Supported by



ARKET

JUNG

AMORIM  
CORK  
COMPOSITES

Thanks to Samsung The Serif, and kvadrat

## 운영시간

10:00 ~ 20:00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신정 당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익일 휴관)

## 가이드 투어

10:30 ~ 17:00

전문 구루(Guru)와 함께

디자인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관람해보세요.

진행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투어시간: 30분 내외(가이드 수신기 제공)

## 단체투어

단체 관람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899-6611)로 연락주세요.

## 예약방법

### 사전예약

홈페이지: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고객센터: 1899-6611

### 현장접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당일 사전예약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 Opening Hours

10:00 ~ 20:00

(Closed on the first Monday of every month,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anksgiving plus the following day)

## Guided Tours

10:30 ~ 17:00

Explore the design exhibition with Guru expert.

Available Languages: Korean / English / Chinese

Tour Time: Approx. 30 minutes(audio guide equipment provided)

## Group Tours

If you wish for a group tour,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1899-6611).

## Making Reservations

### Advance Tickets

Website: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Customer Service: 1899-6611

### Onsite Ticketing

Please inquire about ticket purchase at the information desk.

Only available if the advance tickets for the day have not sold out.



본 인쇄물은 미래 세대를 위해 FSC® 인증 인쇄용지에  
공기를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This brochure is printed using soy ink on FSC® certified  
printing paper for our future generations.